

# 개항기 조선, 서양과 만나다 (정동 역사기행)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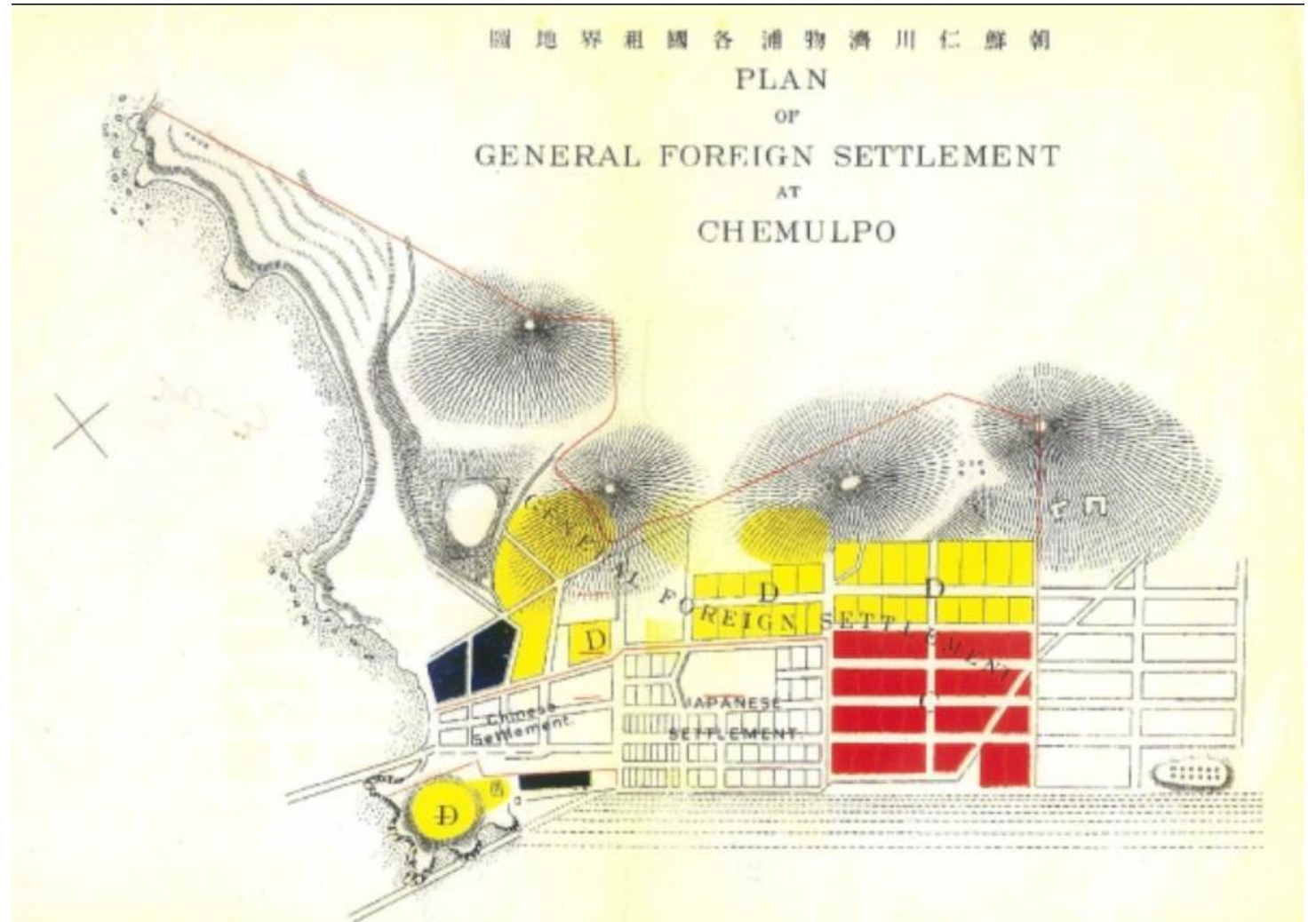
담당교수: 배민재

# 19세기 후반, 한국을 찾은 서양인

- 서양 열강과의 조약 체결: 조미수호통상조약(1882), 조영수호통상조약(1883), 조독수호통상조약(1883), 조러수호통상조약(1884), 조불수호통상조약(1886) 등
- 개항 이전: 표류 or 밀입국  
cf) 예외 케이스: 뮐렌도르프 (P.G. von Möllendorff)
- 개항 이후: 외교관, 선교사, 실업가
- 개항에 따른 공간적 변화
  - 개항장, 조계 등에 외국인 거주지 형성
  - 서울의 외국인 거주 지역: 박동 → **정동**

## 조선의 개항장, 인천 제물포

- 1876년 개항 이후 최초로 설치
- 초기에는 일본이 제물포 무역 독점
- 1883~4년 각국과 통상 체결(조계 관련 조항 포함)
-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(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)





## 외국인을 위한 숙소, 호텔

- 인천- 대불호텔(大佛Hotel), 스투어드호텔(Steward's Hotel), 꼬레호텔(Hotel de Coree) 등
- 서울- 서울호텔(Seoul Hotel), 프렌치호텔, 임페리얼호텔, 스테이션 호텔
  - 손탁호텔: 1896년 개장, 1902년 증축

# 임오군란 & 갑신정변 1

- 임오군란(1882년)
  - 군제 개혁 - 5영(營)을 폐지, 무위(武衛)·장어(壯禦)의 2영 설치, 별기군(別技軍) 창설
  - 1882년 6월 군료 지급을 둘러싼 소요 사태 → 궁궐 습격
  - 흥선대원군이 사태 수습 청일 양국 출병, 갈등 고조
  -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(1882년 10월)
  - 친일파, 친정파 대립 → 갑신정변 야기
- 갑신정변(1884년)
  - 청국의 조선 자주독립의 침해
  - 개화파의 근대화 정책에 대한 청국 및 민비 수구파의 저지와 탄압
  - 개화파의 구상: 구미세력을 이용하여 청을 견제하고자, 그러나 구미 열강과의 국교 수립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

## 임오군란 & 갑신정변 2

- “9월부터 玉均·英植·泳孝·光範·載弼이 가끔 모임을 가졌으며 때로는 劉鴻基의 집에서 모였다...광범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竹洞令監과 사이가 나빠 항상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옥균·영효·영식과 더불어 매번 의논하여 함께 개화를 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죽동부자를 제거한 연후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 또 늘 옥균가에 가서 劉大痴(致)·朴怡順·邊樹와 항상 일을 의논하였다...” <李允相鞫案>
- 김옥균·박영효·홍영식·서광범·서재필 등
- ‘청·불전쟁’으로 청군 병력 이동
- 일본의 태도 변화  
“청국이 장차 망할 것이니 귀국의 개혁 지사들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” - 다케조에 일본 공사
- 삼일천하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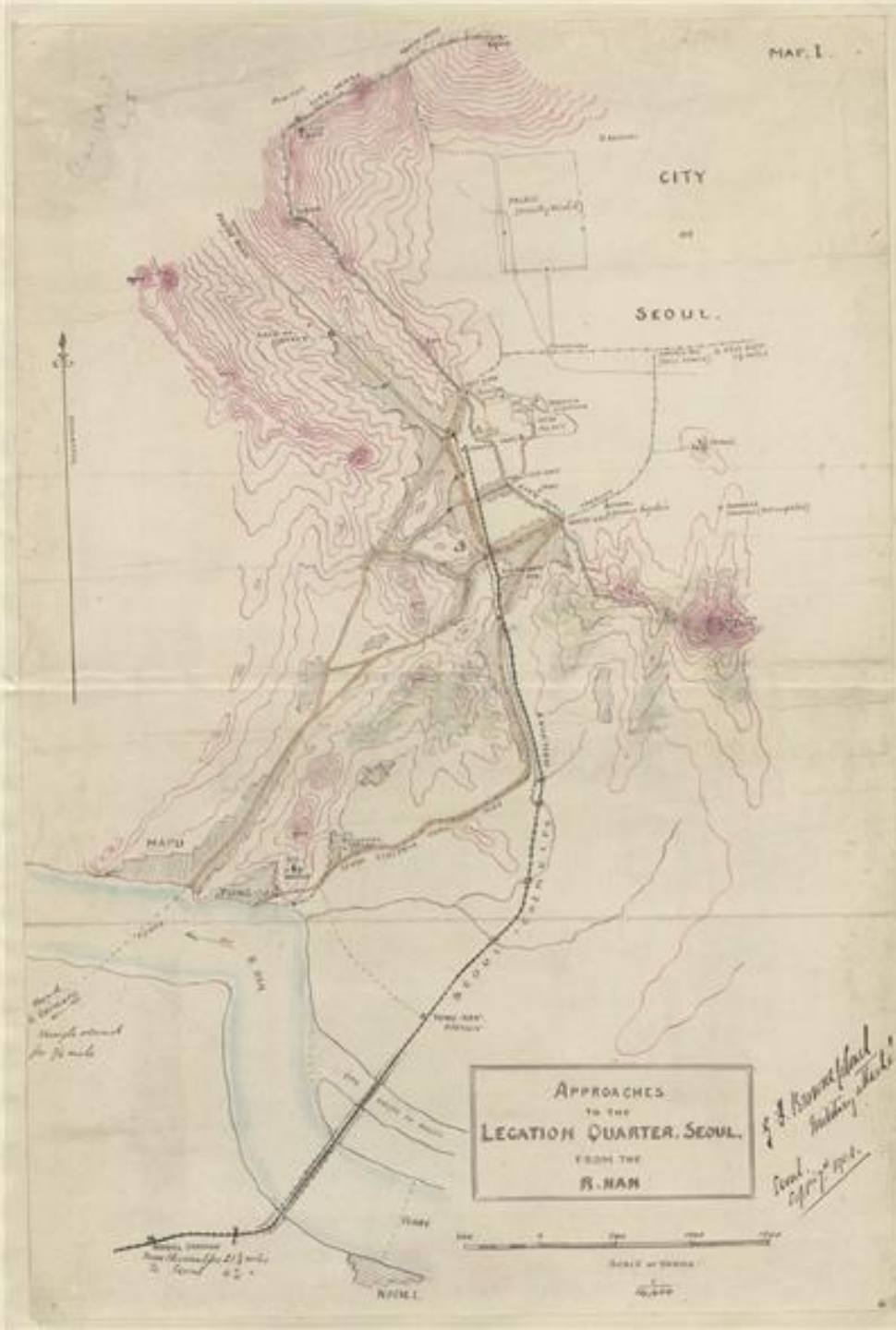
## 서울 박동(수송동)

- 뮐렌도르프 거주(민검호의 집)
- 1883년 해관 창설

# 서울 정동

## - 서양 국가의 공관 부지

- 정동의 첫 서양인 거주자: 푸트(L.H.Foote)
- 이후 주한 영국총영사 애스턴(W.G.Aston)이 영사관 부지 매입
- 왜 정동을 선택하였나?
  - 입지
  - 가격
  - 전망(view)
- 해관본부 이전(1885)
- 공사관 거리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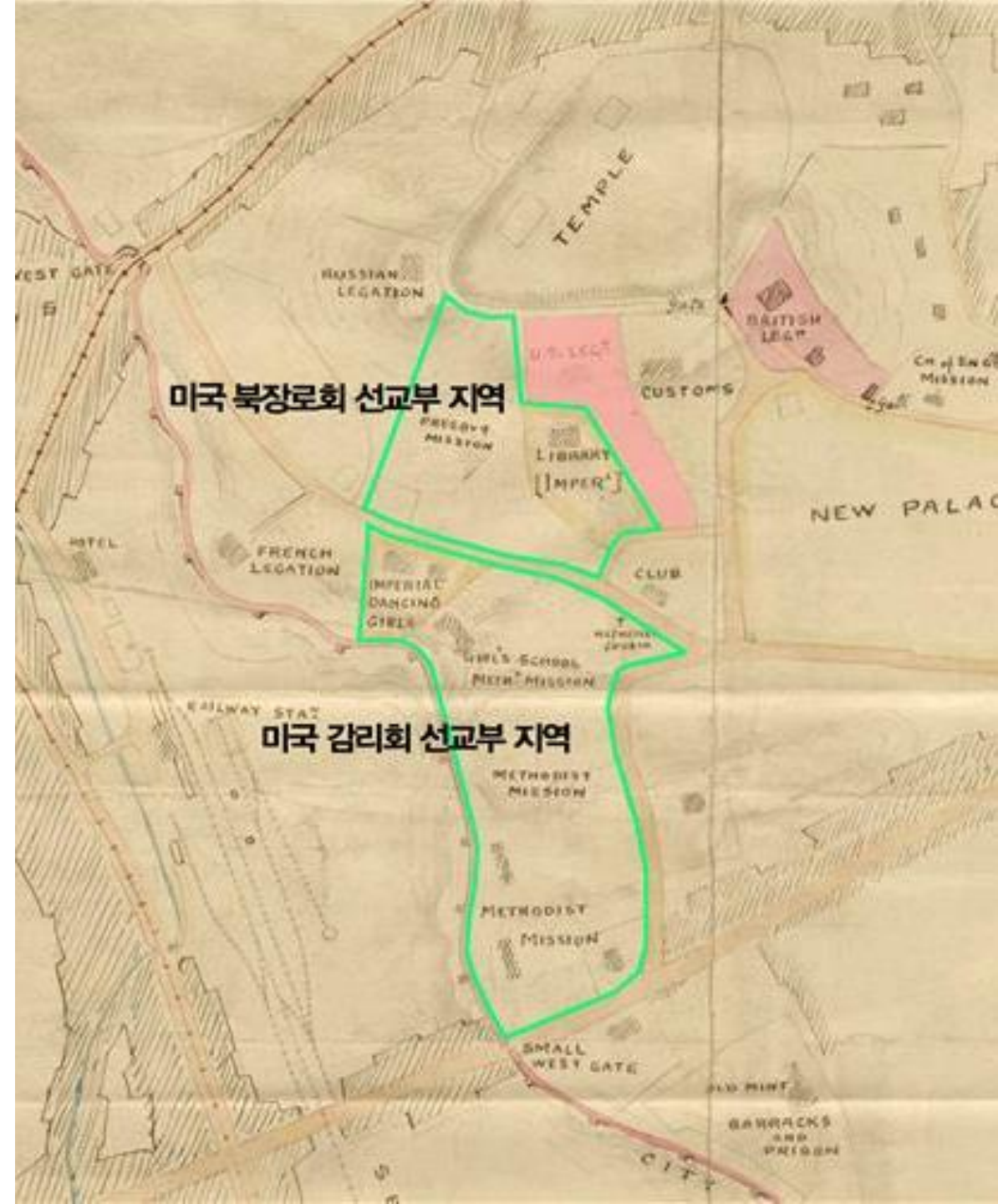




# 서울 정동

## - 선교의 거점

-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, 미국감리회 선교부 진출
- 초기에는 병원과 학교에 한해 사업 허가(예배 X)
- 병원, 고아원, 학교 등 설립
-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지역: 정동길 북쪽. 고아원, 경신 학교, 언더우드 학장, 정동여학당 등
- 미국 감리회 선교부 지역: 스크랜튼병원, 배재학당, 이화 학당



# 서울 정동

## - 외교의 중심지

- 1885년 러시아 공사관 입주
- 프랑스(1889), 독일(1890) 등도 공관 부지 매입
- 영국과 러시아 등 서양 열강의 각축 공간
- 'Legation Quarter(혹은 Europe Quarter, 공사관 구역)'
- 개신교 선교부는 1890년 무렵부터 점차 정동 밖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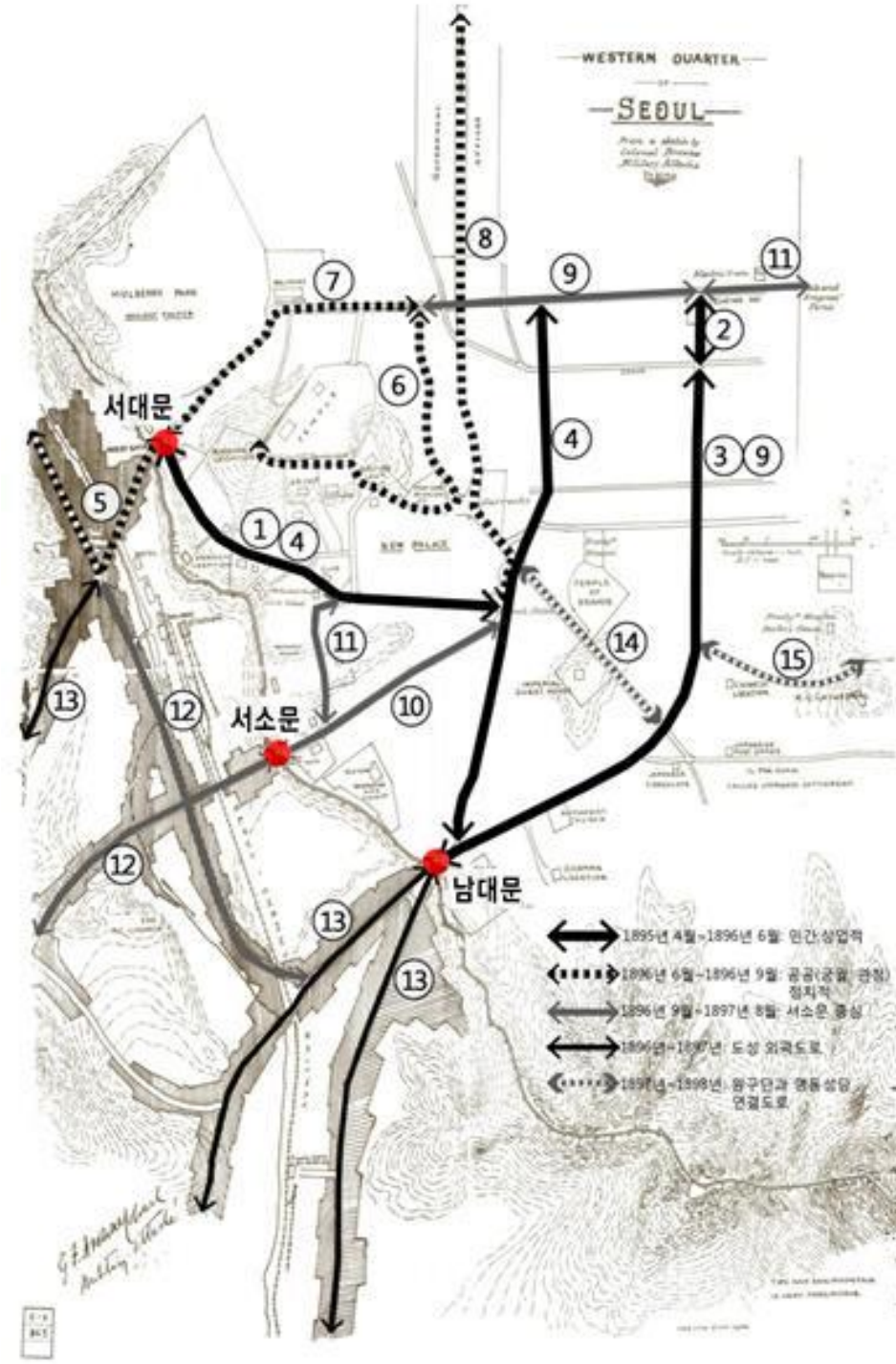
- 병원이 성공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불비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제 판단으로는 남대문 상동에 있는 병원이야말로 그 위치며, 주변의 교통량이며, 상주인구수를 감안할 때 참으로 바람직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곳은 민중이 있는 곳인 반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외국인 주거지역입니다.(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, 1893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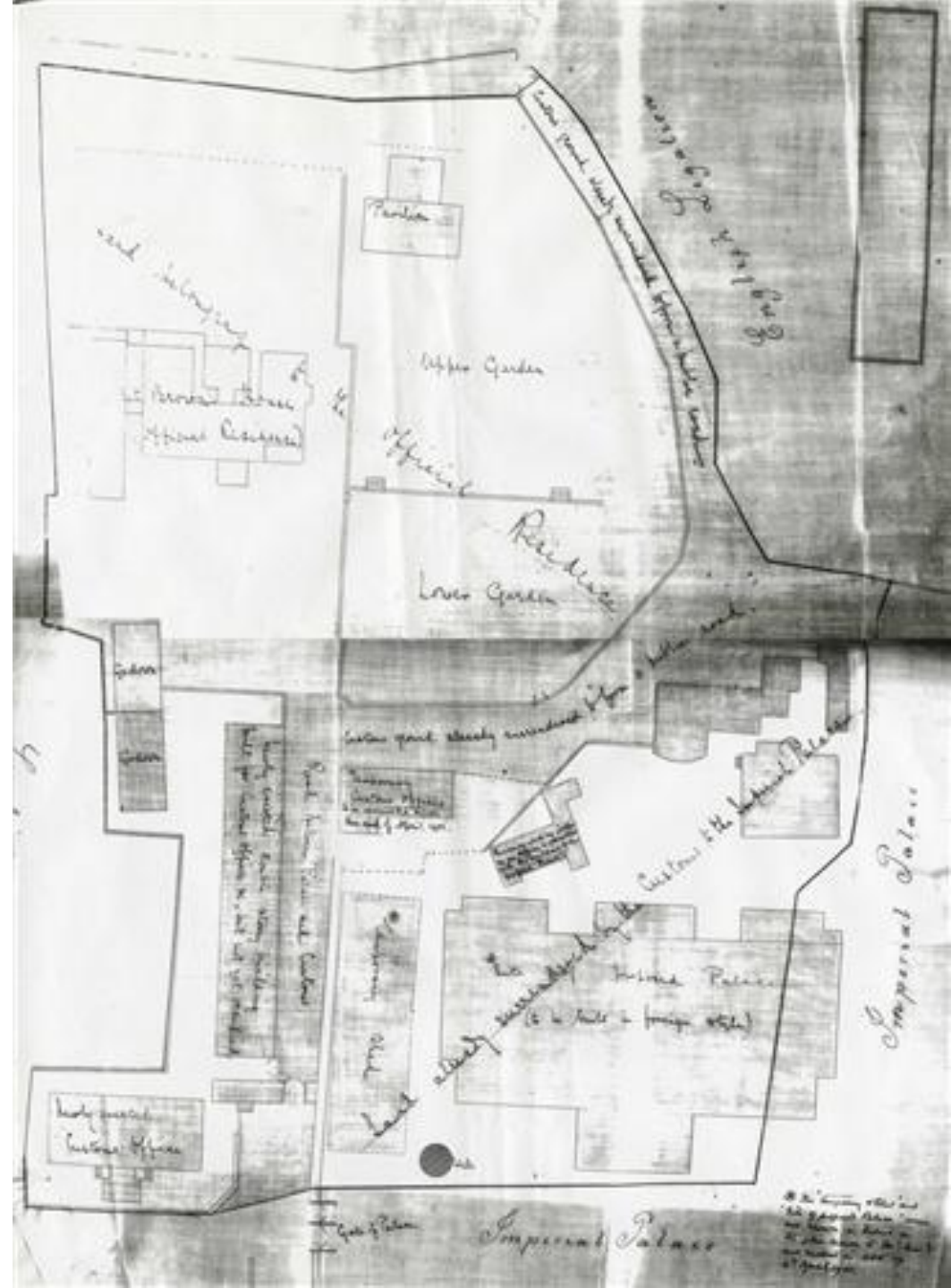
# 서울 정동, 근대도시계획

- 1894년 도로 정비 시작
  - '대로를 각 동리에서 맡아 수리할 것'
  - '물길을 트고 다리를 수리하고 풀을 베고 구덩이를 메울 것'
  - '물이 도로에 쏟아지지 않게 할 것'
- 1895년 정부 예산으로 조사, 측량 등 시행
  - 탁지부 및 해관의 브라운(McLeavy Brown), 내부 토목국장 남궁억, 한성부의 이채연 등이 주도
- 1897년 무렵에는 도성의 내부 도로까지 정비 사업 확산



# 서울 정동, 대한제국의 중심

- 1896년 2월 아관파천: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
- 1년 후 경운궁으로 환궁
  - 러시아, 영국, 미국 등의 공관, 해관본부, 교회, 학교 등 다양한 구미 세력 간 힘의 균형과 보호
  - 대한제국 선포 이후 경운궁 확장: 독일 영사관 부지 매입, 손탁호텔 증축, 정신여학당 부지 매입하여 수옥헌(황실도서관)으로
  - 궁궐 내 서양식 건축물: 돈덕전, 석조전
    - 정동 내 서양인 영역 축소, 대한제국 영역 확대
    -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장소성 강화





# 손탁호텔

- 손탁(Antoinette Sontag, 1854 ~ 1922): 프랑스계 독일인,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함께 조선 입국
- 궁내부와 러시아 공사관 사이의 연락 업무
- 1895년 고종이 한옥 1채를 선물로
- 아관파천 계획 및 실행에도 관여
- 이후 한옥을 양옥으로 증·개축
- 1902년 2층으로 재건축, 정식 호텔 개장

